

01 청소년의 자원 관리

학습 목표

- 생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다.

매사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임진왜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기록했지요.

CD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

CD



애니메이션

함수는 재료를 넣어 새로운 값을
만드는 틀이다. 위인들이 함수
기계에 넣은 요소는 무엇일까?

신사임당



이순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공부와
그림 그리기를 했지요. 평생
동안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1분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시간 관리
계획을 세웠지요.

보충 역사 속 인물들의 자기 관리

-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그는 절제, 질서, 절약, 근면 등 13가지 계율을 정하고 수첩에 이를 적어 매일 실천했다. 그가 휴대하고 다녔던 수첩 형식에 착안하여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일정 관리 수첩이 만들어졌다.
- 신사임당(1504~1551): 조선 전기의 서화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자수와 서화에 능했다. '초충도'는 벌레들이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섬세한 표현력을 뽐내는 작품으로, 이 그림을 본 달이 살아 있는 곤충인 줄 알고 쏘아 종이가 뚫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이순신(1545~1598): 조선 시대 무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쓴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책이다.

활동 안내

위의 보충 자료를 이용하여 '난중일기', '초충도', 프랭클린의 일화를 들려주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역사 속 인물들의 시간 관리를 통해 자기 관리를 하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무엇이 궁금 한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양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시간 사용 결과도 같을까?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알아보자.

자기 관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 **예시 답** <자기 관리를 하면 좋은 점>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